KBS 드라마가 또 통했다…월화 · 수목 · 주말극 '1위'

저글러스:비서들 · 흑기사 · 황금빛 내 인생 등
요일별 다른 매력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

KBS 2TV 드라마가 월화, 수목, 주말극 모두 시청률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KBS 드라마가 일주일 시청률 모두 1위를 기록한 것은 '동네 변호사 조들호-태양의 후예-아이가 다섯'이 방송됐던 2016년 이후 1년 만이다.

12일 방송된 KBS2 월화 드라마 '저글러스:비서들'은 1.2%포인트 상승한 8%(닐슨 전국 기준)의 시청률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회에서는 철옹성 같았던 보스 남치원(최다니엘 분)이 알고 보니 비서 좌윤이(백진희 분) 집의 세입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엎치락뒤치락 관계 역전의 묘미를 보여줬다.

특히 방송 말미에는 치원이 '관심'과 '간섭'의 차이를 서서히 알아가며 윤이에게 본인의 정보가 담긴 '100문 100답'까지 건네는 등 핑크빛 변화를 기대하게 했다.

단 2회 만에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 1위를 기록한 KBS2 수목드라마 '흑기사'는 어제 방송된 3회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수목극 왕좌 굳히기에 들어갔다. 3회에서는 문수호(김래원 분)와 정해라(신세경 분), 샤론(서지혜 분)의 200년 전 인연이 베일을 벗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의 서막이 올랐다.

특히 방심할 틈을 주지 않는 해라를 향한 수호의 '돌직구 심쿵 멘트'는 안방극장을 달달함으로 가득 메우며 완벽한 멜로를 연출해 냈다.

KBS2 주말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의 성과도 대단하다.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온 시청률이 41.2%(닐슨 전국 기준)를 기록하며 마침내 업계의 '마의 벽'이라고 불리는 40%를 넘어선 것.

KBS 주말극이 40%를 넘는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2015년 '가족끼리 왜 이래' 이후 처음이다.

특히 최근 2막에 돌입한 '황금빛 내 인생'에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온 서지안(신혜선 분)-서지수(서은수 분)의 모습과 함께 서지안(신혜선 분)을 향해 직진 로맨스를 시작한 최도경(박시후 분)의 모습이 그려지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앞서 "좀 더 젊고 신선해졌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던 KBS 드라마 라인업이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 번 통한 셈이다.

특히 요일별 드라마가 각각 오피스 로코, 판타지 멜로, 가족 드라마라는 서로 다른 매력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KBS 정성효 드라마 센터장은 "기존에 해오던 드라마와는 달리 소재적인 면에서 좀 더 참신하고 트렌드에 맞는 작품, 특히 시청자분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려 노력했는데 좋게 봐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저글러스:비서들'은 매주 월화 밤 10시, '흑기사'는 매주 수목 밤 10시, '황금빛 내 인생'은 매주 토일 저녁 7시 55분에 KBS 2TV에서 방송된다.

'라디오스타' 김호영, 세상에 없던 역대급 하드캐리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뮤지컬배우 김호영이 세상에 없던 역대급 하드캐리 캐릭터로 4MC와 시청자들을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김호영은 허를 찌르는 각종 매력을 대방출, '라디오스타'의 레전드 예능인 계보를 이었다. '라디오스타'는 세상에 없던 캐릭터로 화제몰이를 한 김호영을 비롯해 소유-에릭남-제국의아이들 김동준 역시 토크 열정을 폭발시키며 수요일 밤을 제대로 뒤집어 놓았다.

지난 13일 밤 방송된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기획 김영진 / 연출 한영롱)는 '너 말고 니 친구' 특집으로 소유-에릭남-김동준-김호영이 출연했으며, 양세찬이 스페셜 MC로 김국진-윤종신-김구라와 호흡을 맞췄다. 14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라디오스타' 1-2부는 각각 전국 기준 5.3%, 4.8%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수요일 밤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 동 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김호영은 오프닝에서부터 심상치 않았다. 김호영은 "저 잘 모르시죠? 독보적인 뮤지컬배우 김호영이에요"라고 인사를 했고, "처음 나왔는데 주변에서 굉장히 제가 '라디오스타'에 나가길 바랐어요"라며 자신감을 드러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녹화 전 인터뷰를 '라디오스타' 녹화 시간만큼 했다는 김호영은 쉴 틈 없는 매력발산으로 눈을 떼지 못하게 했다. 신점을 좋아한다는 김호영은 "일단 제가 들어가면 그 분의 첫 마디가 '범상치 않은 놈이 왔구나'다"라고 말해 공감을 자아냈는데, 이와 다르게 종교는 가톨릭이며 세례명은 '베네딕트'라고 밝혀 큰 웃음을 줬다.

특히 김호영은 김구라와의 토크 대결에서도 특유의 유쾌함으로 응수했다. 김호영은 테이블을 '똑똑' 노크하는 특유의 동작, 일명 '손 노크 후 뿌림'을 보여줬는데, 김구라는 "저도 많이 하는데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호영은 "김구라 씨는 정확하게 짚는 스타일이면 저는 뿌리죠"라고 반박하며 다시 한 번 마성의 기운을 전파했고, 김구라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캐릭터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김호영은 "선배님 감사합니다"라며 애교 넘치는 흩뿌림을 선사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김호영은 입담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호영은 "때를 잘못 타고 났다"라며 7년 전 '세바퀴'에 나가서 통편집 당했던 댄스를 무반주로 보여주며 열정을 드러냈다. 또한 '세바퀴'에서 배우 이민정과 전화통화를 했는데도 통편집을 당했다고 밝히며 '동시간대' 드라마를 '동시대'라고, 조승우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이 형은 '혀'를 찌르는 배려가 있다"라고 '허'를 '혀'로 발음하는 등 허술한 매력까지 들통났다. 이에 MC들은 "어휘력이 혀를 찌른다"라고 콕 집어 말해 김호영을 웃게 만들었다.

김호영의 매력은 무대에서도 터졌다.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를 선곡한 김호영은 무대에 앞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김호영은 그 기대에 부응하듯 무대 위에서 전혀 망설임이 없이 코믹하고 요염한 포즈를 드러내며 사뿐사뿐 스텝으로 치명적인 우아함을 선사, '라디오스타'를 통해 때를 만난 듯 봉인 해제된 모습으로 시선을 독차지 했다.

김동준은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스튜디오를 환하게 물들였다. 김동준은 제국의아이들의 히트곡이자 2/3을 자신의 목소리로 채운 노동요 '후유증' 무대로 귀에 콕콕 박히는 목소리와 아이돌 스텝으로 에너제틱한 매력을 뽐내는가 하면, 뮤지컬배우의 발성으로 윤종신의 '좋니'를 불러 윤종신마저 웃게 만들었다. 김동준은 소지섭-송승헌이 마시는 '오이 소주'에 대해 언급하며 "오전 5시까지 10병을 마셨다"고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에릭남은 놀라운 연예인 인맥을 자랑했다. 에릭남은 클레이 모레츠와도 친분이 있으며 바바라 팔빈의 만남 대신 방송 첫 회식을 선택했음을 밝혔고, 제이미 폭스가 자신의 노래를 즉석에서 듣고 외워 화음을 넣어준 사연도 공개했다. 또 에릭남은 소속사에서 싫어하지만 자신은 좋아하는 기상천외한 원숭이 개인기를 공개, 스튜디오를 웃음으로 가득 채웠다.

소유는 성시경과의 술자리 일화를 공개했다. 소유는 "올해 앨범 작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 성시경 오빠다"라며 앨범 작업 에피소드를 공개했고, 윤종신이 자신과 녹음을 하다 약속 시간 때문에 먼저 가 버린 일화도 폭로했다. 또 소유는 투표장에서 찍힌 굴욕짤 때문에 마치 스케줄을 가듯 메이크업을 하고 집 앞의 투표장을 찾았던 사연까지 언급했다.

또한 스페셜 MC로 참여한 양세찬은 적재적소에 맞는 진행으로 MC들과 어우러지며 큰 웃음을 줬다. 이처럼 '너 말고 니 친구' 특집으로 진행된 '라디오스타'는 유쾌한 웃음으로 똘똘 뭉친 4게스트 소유-에릭남-김동준-김호영을 통해 수요일 밤 시청자들에게 통통 튀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민박객들과 깊은 대화…'효리네 민박 시즌2' 더욱 풍성해진다

큰 성공을 거둔 콘텐츠 JTBC '효리네 민박'의 시즌2가 내년 1월 말~2월초 촬영에 돌입한다.

시즌2의 공간도 시즌1과 같은 제주도 이효리의 집이지만, 그림이 제법 많이 달라질 전망이다.

여름에 촬영된 시즌1의 주된 그림은 제주도의 야외가 많았다. 민박손님이 공항에 내려 효리네에 투숙한 후 각자 팀별 개별 야외 투어 일정을 소화했다.

효리집에서 함께 하는 장면은 아침밥을 먹을 때와, 저녁과 밤 마당의 모닥불 대화를 할 때였다.

시즌2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주의 겨울이다.

겨울 제주 야외 풍광은 또 다른 감성적인 분위기를 제공하지만 너무 추워지면 야외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집 안에 오래 머물게 되면 답답하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정효민 PD는 "촬영에 들어가봐야 알겠지만, 오히려 사람들 간의 물리적 거리가 더욱 가까워져 사람들끼리의 밀접함과 친밀함, 민박객들과의 대화가 풍성해질 수도 있다"면서 "겨울이라 해도 빨리 떨어져 밤이 깊어진다. 7시만 되도 한밤중이다. 그러니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 PD는 "시즌1을 촬영했던 많은 우리 스태프들도 단순히 제작진이 아닌 장기간 효리네 민박집에 머무른 손님이었다"면서 "효리-상순 씨가 스태프도 가족 같은 느낌으로 대해주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즌2는 시즌1에 비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더 많이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자신의 집을 떠난 여행지라는 공간이라 속내를 좀 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다는 것이다.

그 곳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체크해보면서 향후 인생 설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 이효리는 시즌1때 돈을 많이 벌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싶지 않다고 했다. 이것만 해도 효리는 사람들과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다.

이효리가 시즌2를 하고 싶은 것도 "연예인과 비연예인을 할 것 없이 사람들과 격의 없이 편하게 지냈고, 민박객들과 쌓인 따뜻한 추억과 기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윤현준 CP가 전했다.

한편, '효리네민박2' 시즌2 제작진은 14일부터 28일까지 투숙객을 선정하는 1차면접에 나선다.

면접 참가인원은 200여명. 이에 앞서 제작진은 인터넷으로 투숙객 신청을 받았는데, 오픈 3일째 15만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직원 아이유가 이번에는 음악활동으로 불참한다.

오늘의 운세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음력 10월 28일)

▶쥐띠 행복은 스스로 찾고 만드는 것이다. 운다고 누가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 고통에서 벗어나라. 애정은 만족할 수 없다. 금전은 도움 받을 곳이 많다.

▶소띠 잘못된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며 문제를 풀라. 전진하는 자만 노력의 대가를 얻는다. 약속 또한 신용이 자산임을 알라. 6, 8, 12월생 형제 간 우애를 돈독히 하라. 그보다 큰 자산은 없다.

▶호랑이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려거든 ㄱ, ㅂ, ㅇ 성씨 의견을 받아들여 진행하라. 무슨 일이든 한 번에 성취하려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실행하라. 2, 7, 8월생은 신변을 정리하고 자신을 지켜야 사업도 번창하고 인기 또한 상승할 수 있다.

▶토끼띠 오곡백과가 무성하니 외로워도 마음은 부자다. 애정은 마음의 갈등을 겪을 수다. 부부 간 갈등을 풀고 불만이 있으면 그것만 놓고 대화할 때 새 길을 찾을 수 있다. 8, 9, 11월생 검은색으로 단장.

▶용띠 무슨 일이든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심사숙고해 처신하라. 때가 되면 꿈을 성취할 수 있는데 애정을 쉽게 생각하다 한꺼번에 모두 잃는 격이다. 1, 2, 3월생 동쪽이 길하나 건강에 조심하라.

▶뱀띠 주위 사람들과 추진하는 일이 있다면 급히 서두르지 말고 순서를 기다리며 추진해야 대성한다. 금전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 일로 고전하지만, 곧 해결되겠다. 3, 5, 12월생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라. 남에게는 친절을 베풀면서 즐거움만 추구하는구나.

▶말띠 생각지 않았던 일로 고전이 연속될 기미가 엿보이나 귀인의 도움으로 쉽게 실마리를 찾을 듯. 승부 근성을 살려 끝까지 밀고 나갈 때다. 애정은 짝사랑하는 격. 마음상하니 여행보다 취미를 살려 내 시간을 가져봄이 어떨지.

▶양띠 자만하다 물에 빠지게 되는 격으로 모든 것을 겸손히 생각할 때 자리가 빛나고 주위에 따르는 사람이 많아질 듯. 현실보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으로 일을 추진할 때 대성한다. 7, 8, 11월생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고 북서쪽이 길하다.

▶원숭이띠 주관을 잃고 방황할 수 있는 시기다.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 비록 지금은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라. 애정은 어디론가 멀리 떠나 봐도 마음은 항상 그대로구나.

▶닭띠 잘못된 것을 꾸짖는다면 과실을 지나치게 말하지 말고 이후에 과실이 없도록 방법을 알려줘야 덕을 쌓는다. 자녀 탈선만 탓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해줄 것인지 생각하라.

▶개띠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서서히 받는 운이니 윗사람 도움을 받으며 진행할 때 더욱 길하다.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며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자신을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1, 4, 9월생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돼지띠 사업이 발돋움할 시기가 왔구나. 가정에도 경사 수가 있으나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처신에 주의하라. 남의 말 열 마디보다 가족의 말 한 마디가 보약임을 알고 좀 더 가정에 신경 쓰라. 가족보다 소중한사람은 없다.